

현장 수요에 대응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

2021. 9. 9.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 배경 | 1 |
| 1. 중소기업 일자리 현황 | 1 |
| 2.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 애로사항 | 3 |
| II. 추진전략 | 5 |
| III. 현장 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.. | 6 |
| 1. 고용 인프라 강화 | 6 |
| 2. 신기술·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| 13 |
| 3. 경영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| 17 |
| IV. 향후 계획 | 2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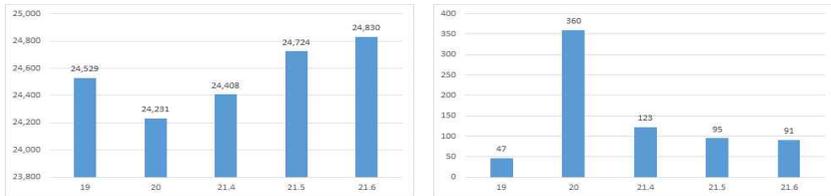
I. 추진 배경

1 중소기업 일자리 현황

◇ 중소기업 고용은 회복세를 보이나, 대기업에 비해 더딘 회복

-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도 최근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일시휴직자 수가 1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소폭 회복세

<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수(천명)> <사업부진·조업중단에 의한 일시휴직자 수(천명)>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2019~2021), 중기연, 중소기업동향(2019~2021)

- 건설업,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며, 제조업, 도·소매업 등은 감소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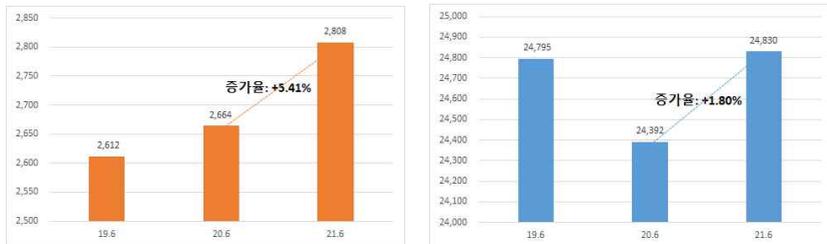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명)

| 구분 | '19 | '20 | '21.4 | '21.5 | '21.6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건설업 | 1,963 | 1,960 | 2,014 | 2,050 | 2,074 |
| 교육서비스업 | 1,723 | 1,624 | 1,651 | 1,685 | 1,680 |
| 제조업 | 3,596 | 3,546 | 3,511 | 3,525 | 3,486 |
| 도·소매업 | 3,553 | 3,399 | 3,261 | 3,296 | 3,257 |

자료: 통계청, 중기연 경제활동인구조사(2018~2021)

- 다만, 대규모 사업체(300인 이상)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나 중소사업체(300인 미만) 취업자 증가율은 더딘 회복세

<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수(천명)> <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수(천명)>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2020~2021), 중기연, 중소기업동향(2019~2021)

◇ 벤처 고용과 신규 창업은 지속 증가하나, ICT업종 등에 집중

- 벤처·창업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
 - 벤처기업 고용은 전년 대비 6.7만명(+10.18%)이 증가하였고, 기업당 평균 고용도 20.5명으로 증가(+10.22%)

- 특히, ICT서비스 업종 고용이 18.4% 증가*하여 이를 중심으로 상승
- * 벤처 고용 증가율(% '21.상) : (ICT서비스) 18.4, (유통서비스) 12.5, (전기기계장비) 4.8

<상반기 벤처기업 고용인원 수(명)>

<상반기 창업기업 수(개사)>



자료: 중기부, 벤처기업고용동향(2020~2021), 창업기업동향(2017~2021)

- 창업기업은 '21년 상반기 73만여 개사가 창업하여,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,

-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업종*이 대폭 성장하여, '21년 상반기 최초로 12만 개를 돌파**

* 기술기반업종(OECD, EU 기준) : 제조업 + 지식기반 서비스업(정보통신, 전문·과학·기술, 사업지원서비스, 교육서비스, 보건·사회복지, 창작·예술·여가서비스)

** 상반기 기술창업 수(개) : ('19) 113,482 → ('20) 116,280 → ('21) 122,444

(단위 : 개, %)

| 구분 | 기술 창업 | 제조업 | 정보통신 | 전문 과학기술 | 사업 지원 | 교육 | 보건·사회복지 | 창작·예술·여가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'20.상 | 116,280 | 25,402 | 17,359 | 26,600 | 19,694 | 21,274 | 2,613 | 3,338 |
| '21.상 | 122,444 | 24,974 | 22,444 | 32,468 | 15,277 | 20,910 | 2,694 | 3,677 |
| | (5.3) | (△1.7) | (29.3) | (22.1) | (△22.4) | (△1.7) | (3.1) | (10.2) |

자료: 중기부, 창업기업동향(2020~2021)

* () 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(%)

⇒ 중소기업의 신속한 고용회복을 유도하고, 코로나19로 가속화된 ICT 위주 성장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면한 현장 애로 확인해결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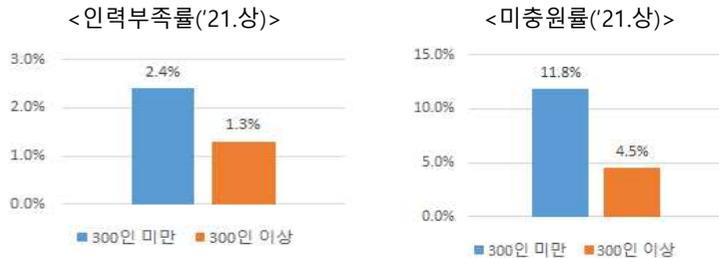
2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 애로사항

◇ 경제충격으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고용 미스매치 지속

○ 청년 취업난*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 및 미충원율은 대기업의 약 2배로 고용 미스매치 현상 지속

* 구직단념자 현황(20.6월/21.6월 만명, 통계청) : (20대) 17.6/18.6, (30대) 9.6/8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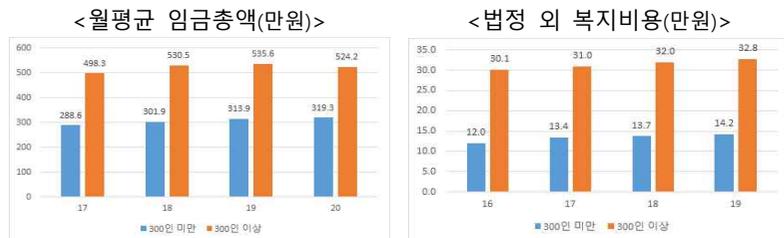
** 청년구직포기사유('21.5월 % 통계청) 근로조건 42.1, 학력경험 부족 24.2, 일거리 부족 15.5 등



자료: 고용부,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(2021)

1) 인력부족률(%) = (부족인원 ÷ (현원 + 부족인원)) × 100, 2) 미충원율(%) = (미충원인원 ÷ 구인인원) × 100

- 또한,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 및 복지 수준 격차 여전



자료: 고용부, 사업체노동력조사(2017~2020), 기업체노동비용조사(2016~2019)

◇ 4차산업혁명, 디지털화 등에 따른 신산업분야 인력수급 애로

○ AI,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로 급격화된 디지털·비대면화로 인해 ICT기술 활용 산업이 급속히 성장

- ICT·SW 분야 단순 개발자뿐만 아니라 디지털·신기술 적용 가능한 전문인력 품귀현상 심화

* 중소기업의 29.4%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애로(한국경제연 '20.8)

** 향후 5년간 SW부족인원 2.9만명(수요 35.3만명-공급 32.4만명) 예상(고용부, SW정책연구소 '21.6)

○ IT 선도기업 및 일반기업에서도 SW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봉 인상 등 인재 영입 경쟁 가속화

- 우수 인재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·벤처기업은 SW 분야 인력난 심화 우려



자료: 과기부, ICT 실태조사(2020), 통계청, 서비스업 조사(2020)

◇ 기업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원활한 대응 미흡

○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·저탄소화의 촉진에 따른 탄소 국경세 도입, 온라인매출 증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

* 탄소국경세 시행 시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73.7%(대한상의)

-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 직무전환 등 대응능력 제고 및 체질 개선 지원 필요

* 중소기업 비대면 경제 대응계획('20.8, 중진공) : 대응계획 마련되지 않음 81.1%

**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('21.2, 중진공) : 준비계획 없음 56.1

○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(7.1~), 5~49인 사업장 적용되었으나 뿌리기업 등 제조업은 준비상황이 상대적으로 미흡*(중기중앙회, '21.5월)

* (전산업) 준비완료 81.6%, 준비 중 10.7%, 준비 못함 7.7%, (제조업) 준비완료 61.3%, 준비 중 24.2%, 준비 못함 14.6%

- 신규인력 채용 시 인건비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등으로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

⇒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해 하반기부터 신속한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, '22년까지 확대 시행하여 중소벤처기업 주도 고용회복 견인

II. 추진전략

중소·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충

< 2021년 하반기 추진목표 >

- ◇ 우수 중소기업 10만명 직접 매칭, 복지플랫폼 가입자 30만명 확대
- ◇ 신기술 창업·벤처기업 현장 인력 1.3만명 양성
- ◇ 고용우수기업 지원금 1.1조원, 우대금융 4천억원, 펀드 200억원 출자

| 추진 전략 | '취업하고 싶고, 오래 근무하고 싶은' 기업 발굴·매칭 | 기업 현장의 신기술·신산업 인력 양성·유입 촉진 |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·다각적 지원 |
|-----------|--|---|---|
| 하반기 추진 과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중소기업 고용 인프라 강화 ● 기업-구직자 직접 확대 및 직접매칭 ●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● 중소기업 체험·홍보 확대로 취업 연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신기술·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● 신기술·신산업 분야 인력 육성 ● 창업·벤처기업 우수 인재 영입 ●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금융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 ● 기업 사업전환 및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● 주52시간제 대응 종합 지원 |
| 현장 애로 | 취업난 속 중소기업 고용 미스매치 지속 | 신산업·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부족 | 디지털화·탄소중립 등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|

III. 현장 수요 맞춤형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방안

1 중소기업 고용 인프라 강화

◇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직접 매칭까지 지원하여 하반기 10만 명을 매칭하고, "취업하고 싶고, 오래 근무하고 싶은" 기업 육성·발굴

1 우수기업-구직자 접점을 확대하고 직접 매칭까지 지원

현장 애로사항

- ◆ 중소기업 구직자 다수가 "어떤 기업"이 "어떤 인력 수요"가 있는지 정보 부족
 - * 청년구직자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'기업 및 채용 정보의 입수'를 꼽았으며 (32.9%), 특히 '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(12.7%)'을 요구('21, 중기중앙회 실태조사')
 - ☞ 우수기업 정보 제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,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및 지역·대상별 맞춤형 채용지원 등 기업-구직자 간 매칭까지 패키지로 지원

□ (일자리매칭 프로그램 신설) 부처-민간 협업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9.6만명 직접 매칭 지원('21.7~12월)



○ (발굴·선별) 구인 활동 중인 우수 중소기업 중에서 청년 구직자가 좋아할 만한 일자리를 매월 3천 건 이상 선별('21.7~12월)

- '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'을 활용하여 급여·고용형태 등의 일정 채용요건*을 충족하는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를 선별

* 채용요건 : 연봉 2,700만원 이상, 정규직, 학력·경력 무관 등

○ (채용설명회 등 홍보) 온라인 설명회 및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선정된 "이달의 중소기업 일자리" 홍보

- 일자리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**일자리 플랫폼*내에 전용관을 설치하고, 매월 온라인 채용 동향 설명회**** 개최

* 참!기업 플랫폼(중기중앙회), 기업인력애로센터(중진공), 워크넷(고용정보원)
 ** 지역·직무·연봉수준별 일자리 현황, 워크넷 채용정보 등록 절차, 주요 직무 취업특강 등(월 1회 이상)

○ (매칭지원) 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해 **청년 구직자를 발굴, 연말까지 우수기업 매칭 9.6만명, 취업 1.6천명 달성**

* 3개 추진기관에서 총 3,503개사에 대해 청년 구직자 36,121명 매칭 지원, 402명이 170개사에 취업 성공(7.13~8.31 기준)

| 구분 | 7~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합계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매칭계획 | 36,000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96,000 |
| 취업계획 | 400 | 300 | 300 | 300 | 300 | 1,600 |

-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**일자리커플매니저, 취업 컨설팅 수행사 등을 통해** 취업희망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매칭 진행

- **고용센터와 협업하여** 일자리 발굴, 기업채용지원패키지, 업종별 특별취업지원서비스 등 **연계 취업지원 실시**

* (고용센터) 우수중소기업 취업알선 특별 지원기간 운영, (중기부) 기업채용 지원패키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 우대 등

- **청년채용특별장려금(고용부, '21년 한시)*을 활용하여**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**인건비 지원**

* 신규채용('20.12~'21.12)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(기업당 최대 3명)

| 구분 | 중기중앙회 | 중진공 | 고용정보원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(gymb.mss.go.kr) | 기업인력애로센터(job.kosmes.or.kr) | 워크넷(www.work.go.kr) |
| 매칭 지원 | · 민간 매칭 전문기관(잡코리아)과 협력하여 매칭지원 | · 취업 희망 구직자 발굴 및 우수 중소기업 우선 매칭 지원 | · 전용 채용관 신설 · 채용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|

○ (실적관리) 추진기관별 추진한 **홍보실적, 일자리 매칭 지원, 취업 성공 등 실시간 실적 관리 체계 구축**

□ (**지역·대상별 맞춤형 매칭**) 지방 중기청 및 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활용, **지역별·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**을 통해 **하반기 4천여명 매칭 지원**

○ 지역 기업 구인난 해소 및 취업 촉진을 위해 **지방청(13개)을 통해 지자체·대학 등과 협업하여 맞춤형 채용박람회** 추진('21.下, 38회)

* (예) 충남지역 채용박람회(10~11월, 충남청·충남도·천안시), 수도권 혁신기업 온라인채용박람회(5~11월, 경기청, 인천청, 서울시, 중기중앙회) 등

○ 전국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우수 구인기업을 발굴, **대상별 맞춤형 직무교육, 취업 컨설팅**을 지원하여 취업 지원('21.下)

* ① 구직자 취업지원, ② 대중소 상생형 취업 연계, ③ 현장 코칭 및 채용 연계, ④ 스마트 제조기업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

- 취업 역량강화 **직무교육 과정**(취업전략수립, 실전면접, 직무교육 및 전문가 코칭 도입)에 **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적용** 추진('22년~)

□ (**우수기업 채용정보 제공**) 청년 구직자에게 '참 관장은 중소기업' 플랫폼*을 통해 **약 3만개의 우수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**

* 일자리, R&D,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전문성/우수성/발전 가능성을 공공기관에서 인정받은 신용등급 BB-이상 우수 중소기업(약 3만개)의 정보를 제공(gymb.mss.go.kr), ('21.2월~)

○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**기업정보* 및 채용정보를 5천건 이상 선별하여** 지도(Map), 선호 조건 방식 등의 **탐색 서비스 제공**

* 근로시간, 출퇴근 교통 편의성, 급여, 조직문화, 고용 안정성 등

○ 워크넷(고용부)과의 **상호연계를 확대*하고**('21.하),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**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 전문가 취업 멘토링 시범 도입**('22년)

* 배너광고, 전용 채용관 개설, 구인·구직 매칭실적 공유, 고용센터 활용 홍보 등

②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여 장기재직 유도

현장 애로사항

- ◆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·복지 수준과 비교적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잦은 이직 발생
 - * 중소기업 기피 또는 퇴사 사유는 '연봉 및 복지(인크루트)', '복지후생, 사회적평판(한국고용정보원)',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복지는 43%, 월평균 임금은 66.0%, 특별급여는 29.2% 수준
 - * 중소기업 근로자는 '공공주택(49.8%)', '주택자금(45.6%)' 등 주거에 대한 복지수요가 높으나, 일부 근로자 우선공급 등을 제외하면 주택·기숙사 지원 등이 부족
- ☞ 개별기업이 제공하기 힘든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고, 성과공유·공제제도 및 시설자금 등을 통한 임금·주거여건 향상 지원

□ (자산형성 지원) 공제금 적립을 통한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

○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신규취업한 청년('22, 신규 7만명)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제도 개편(재정지원 합리화 등)을 통한 내실화 추진

* 지원규모: ('21년) 신규 10만 등 35.2만 → ('21년 추경) 추가 2만 → ('22년) 신규 7만 등 36.7만

○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(現 '21년 말)을 1년 연장하고, 지원대상 규모 확대 ('21년, 13.5만명 → '22년, 15.5만명)

○ 지자체·공기업 등과의 협업모델* 확대를 통한 참여기업 부담완화를 지속 추진하고, 공제가입 청년의 만기 공제금에 대한 세부담 경감**('22~)

* 지자체·공기업 등이 해당 지역 기업이나 협력사에 적립금 일부를 지원하여 가입기업 부담완화('21.6. 기준 3,496개사에 7,521명 지원)

** (현행)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분 근로소득세 50%(중소기업 재직) / 30%(중견기업 재직) 감면 (개선) 청년근로자(가입시점 기준)에 대해서는 90%(중소기업 재직) / 50%(중견기업 재직) 감면

□ (근로자 복지) 대기업과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 자율협약*을 적극 장려하고, '중소기업 복지플랫폼**' 가입자를 30만명까지 확대

* 대기업-동반위-협력기업 간 자율 협약('18~'20, 11.9조원 규모의 협약 체결)

** 제휴·입점 업체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(휴양·여행, 건강검진, 자기 계발 등)를 중소기업 재직자에 시장 최저가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('19.9~, 중기부-대한상의)

○ 대·중기 격차 완화 자율 협약을 통해 협력사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지원, 복지시설(콘도 등) 개방 등의 임금·복지후생 향상 촉진

* (예) 대기업 임금 인상분 일부를 활용한 협력사 임금인상, 협력사 임직원 콘도 개방 등

○ 복지플랫폼 가입자 확대(30만명)*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입 이벤트·홍보를 실시하고, 서비스 공급기업과 제휴 확대(136→300개사)

* 가입기업(개사)/가입자(명) : ('20.12) 1만/14.5만 → ('21.8) 1.4만/18만 → ('21.12*) 2만/30만

- 근로자에 복지포인트를 적극 지원한 기업을 '우수활용기업'으로 인증*, 우대**하여 중소기업의 직원 복지투자를 유도

* (복지포인트)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 (우수활용기업) 전 직원의 30% 이상, 연간 35만원/인 이상 포인트를 지급한 기업

** 성과공유기업 지정, 일자리평가 가점 5점, 정책자금 한도 확대(60억→100억), 온라인수출플랫폼 가점 1점('22~) 등

□ (정주여건 개선)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과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, 기숙사 자금 지원 등 추진

○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*을 2천여명 추진**하고, 테마형 매입임대 공급 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***

* 전용면적 85㎡ 이하 국민민영주택 중 특별공급물량에 대해 중기부(지방청)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'기관추천' 유형으로 대상자 추천('04~), 온라인청년센터와 연계하여 홍보추진

** 주택우선공급 추천 현황(호) : ('20) 2,268 → ('21.8) 1,008 → ('21.12*) 2,000

*** 청년 창업공간, 돌봄 공간 등 공용공간이 구비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('21.9)

○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공용 통근버스 임차·운영 지원

* (지원규모) 81.5억, 49개 자치단체, 57개 사업 지원

(기숙사) 월 임차료의 80%, 최대 30만원, (통근버스) 자치단체당 최대 5억

○ 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유도하기 위해, 기숙사를 신축·매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 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('22년)

* 기숙사를 신축·매입하는 경우, 용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

□ (성과공유 확산) 중소기업-근로자 간 성과공유* 기업을 10만 개사(누적)까지 확산하고 고도화 모델 발굴·보급 추진

* 7개 유형(경영성과급, 임금수준 상승, 우리사주제도 등)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제도('18~)

○ '성과공유기업'을 10만개 발굴*(~'22년)하여, 사업주·근로자 소득세·법인세 감면 확대**, 지원사업 우대(일자리 평가 가점 등)

* 성과공유기업 현황(개) : ('18) 10,794 → ('19) 31,171 → ('20) 51,275 → ('21.7) 64,629

**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(10% → 15% 상향) 및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소득세·법인세 감면 지원 추진('22년~)

○ 성과공유제 발전모델을 개발하여 성과공유를 통한 새로운 중소기업 성장 지원방안 마련('22년)

*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기존 성과공유제 유형(7개)을 성과공유 발전단계별(1단계 → 2단계 → 3단계 등)로 구분하는 등 발전모델 개발

③ 체험·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취업까지 유도

현장 애로사항

◆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이 부족, 이로 인해 취업수요도 저조

*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'기업에 대한 낮은 평판'이며, 고용 촉진을 위해 '우대지원 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(57.0%)'을 요구('20, 21년 중기중앙회 실태조사)

☞ 고교생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인력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,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기업 인증·홍보 적극 추진

□ (일자리 현장체험) 고등학생(특성화고 등)을 대상으로 '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'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

○ 중소기업 재직자, 전문강사 등이 특성화고에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*을 하반기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, 일반 고교생 대상 확대 검토('22~)

*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 정보, 진로 가이드 등

○ 특성화고 학생이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(존경받는 기업인 등)을 방문하는 '우리 지역 중소기업 알리기*' 캠페인 전개('22년)

* 특성화고 학생이 청년구직자 입장에서 기업 현장방문 및 대표자·재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

□ (모범중소기업 발굴·홍보)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·인증하고 적극 홍보

○ 상생·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인을 발굴하여 '존경받는 기업인'으로 선정, TV 프로그램을 통해 12명의 모범사례 홍보

* 존경받는 기업인의 성과공유, 인재육성 등의 우수사례를 TV 프로그램 홍보('16~)

** 공고(6월) → 평가 및 선정(7월~9월) → TV 방송제작·방영(10~12월)

○ 명문장수기업* 선정 대상을 전체 중견·중소기업 및 전 업종으로 확대**하고 혁신성장 사례를 홍보하여 기업 성장의 롤모델 제시

* 45년 이상 운영, 사회에 기여하고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하는 중소·중견기업('17~)

** (現 대상기업) 중소기업 + 매출액 3,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

(現 대상업종) 건설업, 부동산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 등은 제외

○ 고용안정, 임금, 일·생활 균형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*하여 인센티브**를 부여하고 청년에는 취업정보 제공

* '18년 1,105개소 → '19년 1,127개소 → '20년 1,280개소 → '21년 1,222개소

**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점,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 등

○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'인재 육성형 중소기업*' 인증을 280여개로 확대('21)하고, 평가지표 개선 및 정책가점 확대 등** 추진('22년)

* 인재 양성을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하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('14~, 現 1,034개사)

** (지표개선) 청년 채용활동 실적, 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적 추가 등 (정책가점) 연구인력지원 등 인력지원사업 선정평가 가점 추가 등

2 신기술·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

◇ AI·SW 등 신기술 인력을 연말까지 1.3만명 양성하고, 고용우수 기업 재정지원 1.1조원, 우대금융 4천억원 및 펀드 200억원 지원

1 신기술·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여 인력난 완화

현장 애로사항

◆ **신시장 전문인력**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전문인력 확보 애로

* 산업마다 SW 4%, 바이오헬스 3.2%, 반도체 1.6% 등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(20, KIAT), 채용 이후에도 기업의 요구수준까지 상당 기간 소요(21)

*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제조혁신에서도 '인프라 미비', '장비·솔루션 가격부담'에 이어 '전문인력 부족'이 데이터 분석·활용 애로사항으로 지적(19)

☞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, ①기술전문 인력을 교육·양성하고, ②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채용·파견 지원

□ **(현장맞춤 인력)** AI·SW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현장 중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, 연말까지 현장 인력 1.2만명 양성

○ 신기술·신산업 중심의 인력양성 프로그램*을 통해 1만여명의 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지속 확대 추진(21, 1.05만명 → 22, 1.1만명)

* (고교) AI 특화교육 과정 운영(국립공고), 취업 맞춤형(특성화고) 운영 등 (대학) 인공지능, SW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계약학과 5개 신설(21.下)

- 특히 게임·금융 분야 등에 활용되는 AI 스타트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천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'이어드림(year-dream)' 운영(21년, 100명)

* (공통교육, 5개월) 인공지능 관련 학과 4년 과정을 이수 (특화교육, 3개월) 4대 분야별 실전 프로젝트 진행 (채용 연계) 스타트업 채용 정보를 수시 제공하고, 매칭데이 운영

○ 민간 협회·기업·훈련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인력양성 추진

- '벤처·스타트업 아카데미(벤처기업 주도)', '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(선도기업 주도)'를 시범 시행(21.下, 1,600명)

* 'K-디지털 트레이닝' 내 신규 유형을 신설하여 훈련비+인건비 지원(고용부·중기부 협업)

□ **(스마트 제조인력)** 스마트 제조기업 확대에 따라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 디지털화 뒷받침

○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구직자를 매칭, 직무교육·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* 확대(21, 150여명 → 22, 300여명)

*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100여개사, 스마트제조기술 분야 구직희망자 150여명 대상

** 기업에 기업보조비(月60만원, 3개월), 구직자에게 참여보조비(月20만원, 3개월) 지원

○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계획*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'제조 데이터 촉진자**'를 양성하여 AI·데이터 역량 강화(22, 100명)

* 스마트 제조인력 10만명 양성(~22, 부처협업, 스마트제조혁신대책(18.12))

**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설비 예지보전, 품질 예측, 공정 최적화 등 제조특화 AI·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

□ **(연구인력)** 중소기업의 신기술·신산업 R&D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5백여명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및 채용 등을 지원

○ 공공연구기관 인력 파견,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을 지원(21.下, 310명)하여, R&D 인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

○ 지역 중소기업과 공과대학 간 R&D 프로젝트, 공대 재학생 인턴십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고, 신산업분야* 집중 지원(21.下, 180명)

* SW, 바이오, 소재·부품·장비 등 인력수급이 어려운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

2 창업·벤처기업의 인력 ①유인제도 개편 및 ②양성·채용지원 병행

현장 애로사항

◆ 자금 어려움 등으로 인해 창업·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가 부족

* (A기업 대표) 스타트업은 보수체계가 미비하여 홍보 등을 통한 인재 영입이 제한적, 능력과 실무 경험을 갖춘 고급 인재 확보가 어려움

☞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 인재 영입 기반을 마련하고, 창업·벤처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력훈련·양성 프로그램 마련

□ **(주식매수선택권)** 고급인재 유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 및 세제 혜택 확대 추진

-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**발행요건 완화**를 검토하고, **표준 계약서 마련 및 매뉴얼 보급** 등 제도 개선('22년)
 - * 부여 대상, 행사가격(시가 이상 또는 1인당 5억원 내 시가 이하)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 추진
- 벤처기업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**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 확대** 추진('21, 조특법 개정)
 - * 비과세한도 : (現)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→ (改) 행사이익 기준 5천만원
 - ** 과세특례 : (現) 시가 이상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적용 → (改)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으로 특례 적용 확대(단, 시가 차익은 근로소득세 부과)
- **(공동채용·훈련)** 구직자-구인기업 간 **점점 확대와 성공적 매칭**을 위해 비대면 채용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 **공동채용·훈련** 추진
- **코로나19에 따른 기업·구직자 부담완화 및 감염예방**을 위해 우수 벤처기업과 구직자 간의 온라인 공동채용 진행 ('21, 3,450명)
- **채용된 신입직원의 안정적 적응·정착**을 위한 **벤처기업 맞춤형 공동 훈련**을 추진하되,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 ('21, 400명)
- **(투자심사역 양성)** AI·바이오 등 이공계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**신기술 전문성**을 가진 벤처투자 심사역 육성('22년)
- 대학원과 연계한 **'전공+벤처금융 융합과정'**을 개설하고, 수료자는 벤처캐피탈 **전문투자인력 자격 부여**('22.上, 벤투법 시행령 개정)

③ 일자리 우수기업에 재정·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회복 견인

현장 애로사항

◆ **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 유인이 부족**

☞ **일자리 창출·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금, 펀드, 우대보증, 정책자금 등을 통한 재정·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의 리스크 대응 지원**

- **(고용유지지원금)** 특별고용지원업종*, 집합·제한금지업종 등 **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** 중심으로 **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**('21.下, 1.1조원)
 - * 여행업, 관광숙박·운송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90일 연장 지원(180→270일)

- **(일자리매칭펀드)** **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***에 민간 VC가 투자 시 **모태펀드도 1:1 매칭**하여 투자('21, 200억원 출자, 한국벤처투자)
 - * (예시) 전년 대비 ①20명, ②연평균 40%, ③투자금 1억원당 1명 이상 고용기업 등
- **(고용유지보증)**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**고용규모에 맞춰 추가 보증 한도**를 부여하여 우대지원('21.下, 200억원, 기보)
- 향후 1년간 **고용유지를 확약하는 기업**에 고용인원에 따라 **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 한도** 상향

<고용인원별 지원가능 보증한도>

| 고용인원 | 지원가능 보증한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명 이상 - 2명 이하 | 5천만원 |
| 3명 이상 - 5명 이하 | 1억원 |
| 6명 이상 - 10명 이하 | 1.5억원 |
| 11명 이상 - 30명 이하 | 2억원 |
| 30명 초과 | 3억원 |

- **보증 비율** 85%에서 **95%**(창업 후 1년 이내 100%)로 **상향**하고, **보증료율을 0.3%p** 감면하여 우대보증 지원
- **(일자리 창출 우대 보증)** 고용유형별로 '점핑 잡', '쉐어링 잡', '베스트잡'으로 구분하고, **지원한도·보증비율·보증료 우대**('21.下, 3,000억원, 기보)
 - * (점핑잡)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전년대비 20% 이상 고용증가 기업 (쉐어링잡)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등 (베스트잡)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기업

<고용유형별 우대내용>

| 우대내용 | 고용창출(Track I) | | 고용유지(Track II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| 점핑잡 | 쉐어링잡 | 베스트잡 |
| 운전자금 산정한도 우대 | 150% | 120% | 120% |
| 보증비율, 보증료 감면 | 95%, 0.4%p | | 90%, 0.3%p |

- * (예시) 운전자금 보증한도가 5억원인 '점핑잡' 기업은 7.5억원까지 한도 우대
- **(일자리창출촉진자금)** **일자리 창출·유지 및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***에 대한 **정책자금 지원 확대**('21.下, 980억원, 중진공)
 - * (창출)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등, (유지)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, (인재 육성) 인재 육성형 사업 선정기업,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
 - **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.4%p 감면

◇ 디지털화·저탄소화에 따른 **사업·직무 전환**을 통해 **기업과 근로자의 연착륙**을 유도하고, **주52시간제 확대 적용**을 위한 **종합패키지 지원**

1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①기업 사업전환 및 ②재직자 직무전환 지원

현장 애로사항

- ◆ **디지털화·저탄소화**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**개별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**
 - *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은 약 60.4% 수준('19)이며, 탄소중립에 대해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약 15.1%에 불과('21)
 - * 서비스기업의 86.7%, 비대면 소비가 매출 등에 부정적('20, 한은) /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74.2%, 탄소중립을 위기 요인으로 예상('21, 대한상의)
- ☞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**기업의 사업전환**과 **근로자의 직무전환 지원**

- **(사업전환)** 비대면화·탄소중립에 따른 **경영환경 변화 적응력** 제고를 위해 **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**하여 일자리 확대
 - **사업전환 범위를 확대**하여 동일 업종내 유망품목 전환, 사업모델 혁신 등 **신사업 진출까지 지원**(‘21.下, 법 개정안 발의)
 - * (기존) 업종전환 추가 → (확대) 동일업종내 신품목 전환, 새로운 서비스 개발·제공 등
 - **신사업 진출 유망기업을 선별**하여 **선도기업으로 육성**하고, 사업전환 **단계별 지원 프로그램***을 강화하여 신속한 전환 지원
 - * (준비단계) 전담 매니저 매칭, 컨설팅 → (이행단계) 자금(최대 100억원), R&D 추천, 판로·인력 등 지원 → (사후단계) 우수기업 후속 지원(자금·수출 등)
 - **‘구조혁신 지원센터’(가칭)를 신설**, 사업·노동 전환 수요기업 선제적 발굴 및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**원스톱 지원체계 구축**(‘22.上)
 - * (홍보·발굴) 참여기업 발굴 → (진단·컨설팅) 기업 진단 및 사업전환·노동전환 계획 수립 지원 → (맞춤연계) 지원사업 연계 → (사후관리) 성과분석 등
- **(재직자 지원)** 새로운 사업으로 **전환을 추진**하는 **중소기업 재직자**의 원활한 **직무전환**과 **재배치** 등을 지원하여 **고용유지 유도**

- **저탄소·디지털 전환**으로 인한 **위기산업 근로자**의 **직무전환** 등을 지원하기 위해 **지원금 신설** (‘22년)
 - * ▲ 노동전환 지원금: 사업주가 직무전환·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원금 지급
 - * ▲ 고용안정 협약지원금: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 비용 지원
- 환경 변화에 따라 **고용 위기가 예상되는 산업 종사자**를 대상으로 **고용유지, 이·전직** 등을 위한 **맞춤형 훈련과정*** 공급(‘21, 시범운영)
 - *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산업 지정, 훈련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수시로 공급
- 지역특화형 **장기유급휴가훈련***을 통해 **노동전환**을 위한 **재직자 역량강화·직무전환** 및 **이·전직 훈련** 지원 (‘21.下, 확대시행)
 - * 저탄소·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고용위기를 겪는 재직자들에게 훈련비 및 인건비(고용부)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(지사체)를 제공, 고용유지를 지원

2 주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자금·인력·생산성 부문 종합지원

현장 애로사항

- ◆ **주52시간제 적용기업이 확대**됨에 따른 **현장의 시행착오 우려** 존재
 - * 5~49인 기업 적용 확대(‘21.7월)에 대한 ‘업무량 급증 시 대응 차질’, ‘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인한 인력 부족’, ‘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’ 등의 우려 (‘21, 중기중앙회)
- ☞ 제도변화에 대한 **중소기업의 연착륙**을 위한 **자금·장비·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**

- **(자금 지원)**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**특례 보증, 우대보증 연장 및 인건비 등 하반기 약420억원 지원**
- 노동시간 단축 기업을 위해 **지역신보재단 특례보증 신설,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* 연장**(‘21.下, 165억원) 및 **중진공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금리 우대**** 지원
 - * (지역신보, 기보) 보증비율 85→90% 상향, 보증료 감면 △0.3%p
 - ** (중진공) 기준금리 △0.3%, 기업당 60억원 한도, 대출기간 10년 이내
- **일자리함께하기 사업***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**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**과 **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****(‘21.下, 252억원)
 - * 근로시간 단축, 교대근로 개편 등을 도입확대 시 임금 일부 지원(‘21. 411억원)
 - ** (신규채용) 1인당 최대 2년간 월 80만원, (재직자) 1인당 최대 2년간 월 40만원

□ **(외국 인력 지원)**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* 하고, 50인 미만 뿌리기업 및 지방기업에 외국 인력 우선 배정

*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(E-9, H-2) 중 '21.4.13~12월 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(既조치)

○ **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 내 처리가 어려운 30~49인 사업장**을 대상으로 **특별연장근로 활용 지원**('21.7~12월)

* (8.25. 기준) 외국인력 도입 지연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55건(936명) 인가

□ **(생산성 향상)**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해 **스마트공장 구축 및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**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

○ **스마트공장* 구축 및 고도화**('21.下, 2,300개사) 신청 시 **우대지원**하고, **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통해 주52시간제 도입 규제 대응 컨설팅**** 지원

* 중소·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·고도화 지원

** 제조소기업 맞춤형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 계약·시간 조정 등 지원

○ **뿌리기업*에 스마트공장, 자동화·첨단화, AI 데이터셋** 등을 지원

* 주조·금형·소성가공·열처리·표면처리·용접업종 등 뿌리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
□ **(현장안착 지원)** 5~49인 기업의 **주52시간제 현장안착**을 위해 **1대1 밀착 컨설팅, 제도 홍보 및 애로 발굴·해결**

○ 준비가 미흡한 **제조업**을 중심으로 **지방중기청과 지방고용노동청,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간담회, 현장 방문, 설명회 개최***

* 총 42회, 698개사 참여(~'21.7월),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개선 등 건의

○ **발굴된 애로는 관계부처 TF*,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**** 등에서 **논의·검토**

* 총리실, 고용부, 기재부, 중기부 등 11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TF를 고용부에서 운영

** 중기부, 고용부, 중기중앙회가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본부 및 8개 권역에서 운영

IV. 향후 추진계획

| 번호 | 정책과제 | 하반기 목표 | 소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1. 중소기업 고용 인프라 강화 | | | |
| 1-1 | 우수 중소기업-청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 | 96,000명 | 중기부, 고용부 |
| 1-2 | 지역별·대상별 맞춤형 매칭 지원 | 4,000명 | 중기부 |
| 1-3 |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| 135,000명 | 중기부 |
| 1-4 |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 | 300,000명 | 중기부 |
| 1-5 |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| 2,000명 | 중기부, 국토부 |
| 2. 신기술·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| | | |
| 2-1 | 신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| 10,400명 | 중기부 |
| 2-2 | 스타트업-청년인재 이어드립 프로젝트 | 100명 | 중기부 |
| 2-3 |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| 1,000명 | 중기부, 고용부 |
| 2-4 |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| 600명 | 고용부 |
| 2-5 | 스마트 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확대 | 150명 | 중기부 |
| 2-6 | 중소기업 공공연 인력파견, 고정력 연구인력 채용 | 310명 | 중기부 |
| 2-7 | 지역중소기업 R&D 인턴십 지원 및 산학협력 강화 | 180명 | 중기부 |
| 2-8 | 벤처기업 온라인 공동채용 진행 | 3,450명 | 중기부 |
| 2-9 | 벤처기업 맞춤형 공동훈련 추진 | 400명 | 중기부 |
| 2-10 | 고용유지지원금 | 11,000억원 | 고용부 |
| 2-11 | 일자리매칭펀드 조성 및 매칭 투자 | 200억원 | 중기부 |
| 2-12 | 고용유지보증 | 200억원 | 중기부 |
| 2-13 | 일자리창출 우대 보증 | 3,000억원 | 중기부 |
| 2-14 |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| 980억원 | 중기부 |
| 3.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 | | | |
| 3-1 |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연장 | 165억원 | 중기부 |
| 3-2 |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| 252억원 | 고용부 |
| 3-3 |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| 2,300개사 | 중기부 |